

한지를 입는 나는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다

지누리 한지섬유의 다양한 변신.....“자연을 입으면 자연이 된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는 다펀(자나) 삼지나무(삼지목)의 껍질을 원료로 만드는데 원료와 크기,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다. 용도에 따라서는 20여 가지로 분류되는데 문에 바르는 창호지, 그림이나 글을 썼던 화선지, 도배용으로 쓰는 도배지, 화선지 등 종이 뒷면에 붙여 썼던 배접지, 방바닥을 바르는 장판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종이는 바로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찍어낸 한지다. 여기에 사용된 다펀종이는 황벽물을 들이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염색종이이기도 하다. 미국 애틀랜타 다드 헌터 종이박물관은 안내책자에서 한국인은 종이 원료 자체를 염색해 색종이를 쓴 최초의 장인이며 최초로 봉투를 만들어 쓴 민족'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지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대사회에 맞게 개발한 업체가 있다. 지누리는 다펀(한지) 섬유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지섬유 전문 업체이다. 지누리는 한지사로 신소재인 한지섬유를 만들어 의류와 가방류, 침구류 등의 재료로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우리 생활에서 한지의 우수성과 한지의 이로운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섬유를 제조, 유통하고 있다.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의 고유한 특성

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이다. 한지사란 다펀 인피섬유인 다펀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로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향균성, 소취성능, 흡수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

“전통한지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지 섬유의 다양한 변신

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향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향균력이 99.9% 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다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흡수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수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수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

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뜯겨서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며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습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누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를 현대화시켜 원단 개발과, 한지 산업의 기술혁신, 세계 한지시장 개척 등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한 디자인 및 기능성을 살려 세계 속에 한지사(Korean paper yarn)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interview

김동조 지누리 대표

닥(한지)섬유란 무엇인가요?

웰빙 천연섬유소재로 황토보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제거하는 소취 및 향균기능이 뛰어난 21세기 유망 섬유신소재입니다.

닥(한지)섬유와 전통 한지는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한지는 주로 수목지나 공예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지의 심미적 효과가 중요하지만, 섬유용 한지의 경우 섬유용으로서의 제작이 용이한 작업성과 제직 및 편직에 견딜수 있는 강도와 신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한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한지가 한지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계한지는 그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지사(Korean paper yarn)는 무엇인가요?

면사 굵기 40수 이내로 내의를 짤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실입니다.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직관 편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량소

재로서 성분성이 좋아 청량감과 제습기능, 소취기능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및 염색성, 내 세탁성 또한 우수합니다. 단 섬유이지만 모우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여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사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지는 제작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되지 못하고 쓰임새 또한 다양하지 않았습다. 한지사의 개발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섬유패션 소재를 비롯하여 흡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커튼, 카펫 등)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지누리 만의 경쟁철학이 있다면?

지천년 견오백(紙千年 綱五百)이란 말이 있습니다. 옷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비단의 수명은 500년이지만 다펀종이는 1,000년을 간다는 뜻입니다. 지누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한 장인정신을 경영철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한지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대사회에 맞게 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유한 것이 좋다는 것은 현재 첨단사회에서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누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를 현대화시켜 우리의 한지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 마을버스(오거리 방행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지누리